

# 30년 지켜온 북문로 책문화의 파수병

## 성실과 신용으로 뿌리내린 청주 '일선당'

극장과 은행, 카페며 옷가게, 그리고 음식점들이 한치의 여지도 없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청주 제일의 번화가 북문로 1가. 조용하고 깔끔한 교육도시로 이름난 청주이지만 변화의 화려하고 원색적인 모습은 어느 도시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 거리의 한가운데 주의 건물의 요란한 외양과는 사뭇 동떨어진, 그래서 그 거리에 눈이 익지 않은 이방인이라면 그냥 스쳐지나버리기 십상인 낡고 소박한 5층짜리 빌딩이 일선당 서점이 들어 있는 건물이다.

전 5층의 건물 중 3층과 5층은 창고로 4층은 살림집으로 사용하고 1, 2층에 매장을 꾸며 놓고 있는데 실매장규모는 총 70여평. 1층에는 주로 초·중·고 참고서와 문학, 교양서적용, 2층에는 대학교재와 기술서적, 원서, 정부간행물 등으로 나누어 취급하고 있다. 10여개의 대형 형광등이 책을 찾는 이의 눈을 피곤하지 않게 실내를 환하게 비추어주고 있고 경쾌한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일선당의 매장 분위기는 겉모습과는 달리 밝고 깔끔한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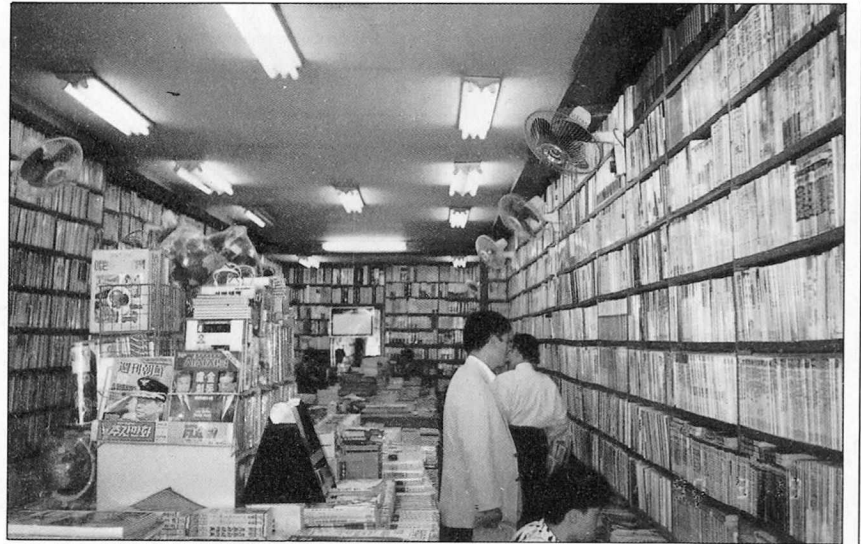
7만여종 30여만권에 달하는 책 보유량과 2천개에 이르는 출판사들과의 직거래를 통하여 신간입수가 다른 어느 서점보다 빠르고 정확하다는 것이 일선당이 지닌 또 하나의 장점. 이런 이유 때문에 일선당에는 청주시내에 있는 다른 서점에서 구하기 힘든 책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다. 하루에 일선당을 드리는 손님은 출잡아 5~600명. 인구 40만에 시내의 서점이 140여개에 육박하며 중심가에 일선당을 능가하는 규모의 현대식 건물의 대형서점이

서너군데나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일선당이 청주의 대표적 서점으로 자리를 굳히기까지는 사장 김현대씨(55세)의 남다른 노력과, 성실과 신용을 제1로 하는 경영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북 선산이 고향인 김현대씨가 생면부지의 타관인 청주에 와서 서점을 개설한 것은 1960년경. 다른 서점의 영업부 직원으로 쌓은 경험과 출판사와의 인연, 그리고 80kg짜리 책8상자와 무슨 일에도 든지 덤벼들 수 있는 젊음과 배짱이 그의 밑천의 전부였다.

“손님이 뜸한 오전에는 가게문을 닫아 놓고 학교로 관청으로 안다닌 곳 없이 백과사전을 들고 다니며 팔았습니다. 15권이 1절인 백과사전을 1년 동안 5백질을 팔았으니 지금 생각해도 대단했다 싶습니다”라고 김사장은 당사를 회상한다. 그것이 큰 힘이 되어줘서 김사장은 4평짜리 삭월세에서 시작한 가게를 4년만에 지금의 자리로 옮길 수 있었다. 옮길 당시 일선당은 40평짜리 단층 목조건물이었는데 73년 서점 전체가 다 타버린 화재를 겪고난 뒤 현재의 건물로 신축된 것이다. 재기불능의 화재를 겪고도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건물을 새로 지은 김사장의 뜻심과, 직접 몸으로 부딪쳐 거래처를 확보하고 확보한 거래처와는 철저히 신용을 지켜나가는 그의 자세가 오늘날 일선당의 성공을 가져다 준 것이라는 것이 주위의 일반적인 평이다.

자신이 그만큼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에 직원들에 대한 김사장의 애정 또한 남다르다. 아침 8시30분부터 밤 10시가 넘어서야 끝나는 근무시간, 휴일을 제대로 찾아 쉴 수도 없는



고된 노역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 서점일이어서 편한 것만 찾는 요즘 젊은이들이 취직을 꺼리는 추세만큼 선택 서점일을 하겠노라는 젊은이들이 기특하기도 하다는 그는 때때로 지독하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직원들에게 근면하고 저축하는 생활을 강조한다. 그의 기꺼운 간섭 덕분에 일선당에서 기반을 닦아 독립한 직원이 차린 서점이 학우서림, 북일서림, 문화서림 등 7군데나 된다.

일선당의 30년 역사는 단골 고객이 많은데서도 드러난다. 국민학교때부터 서점을 찾던 이들이 이제는 자신의 아이를 위한 책을 사러 오는 경우도 많다. 일선당을 찾는 고객의 또 다른 특징은 주부, 직장인, 학생 등 그 계층이 다양하다는데 있다. 최근에는 주변에 조성된 청주공업단지 때문에 손님들 중 생산직 근로자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생산직 근로자와

여성 고객이 많아지는 현상을 보면서 청주의 독서층이 그만큼 두터워진 것 같아 김사장은 기분이 좋아진다고.

“내 나이 40만 되었어도...”라며 고객에게 휴식과 만남의 공간으로도 기능할 수 있는 대형서점의 미련을 표하고 있는 김사장은 금년, 청주대학 구내에 대학내서점으로는 최대 규모인 80평짜리 서점을 개설한 것으로 아쉬움을 달래기로 했다.

“북문로가 점차 유흥의 거리로 전락해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는 그는 ‘일선당 아저씨’로 자신을 알아봐주는 고객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한 “북문로의 정신적 황폐화를 막아내는 파수병의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 박남정 기자

① 포유동물의 세계    ② 환피동물의 세계

Q: 거북이 알을 깨고 나올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은?

① 머리    ② 꼬리

③ 뒷다리    ④ 앞 전체를 파헤치고 동시에 나온다.

정답은 직접 책에서 확인하세요!

드디어 내 차례 닷!

나도이젠 동물 박사!

퀴즈+만화로 배우는 동물의 세계

-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물에서부터 미지의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신비한 동물의 세계를 담았습니다.
- 흥미로운 퀴즈는 동물에 대한 관심과 상상력을 무한히 길러줍니다.

전화 720-5990·1    **진선출판사**    팩스밀리 739-2129

**퀴즈탐험** · 각권 값 3,000원

**신비의세계**

글·그림 김충원

- 재미있는 삽화와 자세한 해설문으로 수많은 동물들의 생태가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 친구들이나 집안 식구와도 함께 풀어보는 즐겁고 유익한 책입니다.